

루터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

최병규 원장

(기독교미래연구원장)



역사의 지평선에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얀 후스 (Jan Hus)가 말했다고 하는 예언이 전설로 전해져오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얘기겠지만, 독일의 로드하임교회 (Evangelische Kirche Rodheim)에는 먼 후일 자기 다음으로 어떤 위대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지는 얀 후스 (an Hus)의 말과 함께 루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후스는 1348년에 설립된 중부 유럽의 명문 프라하대학교(현. 찰스대학교)의 교수로서 위클리프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보헤미아 교회의 개

의는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고,
 생명은 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진리가
 느껴졌다.

바로 이 것이 이신칭의교리로 확립되었고,
 장차 로마 가톨릭의 핵심교리를
 공략하게 되는 영적무기가 되었다.

혁을 외쳤다. 그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와 면죄부 등을 비판하다가 화형당했는데, 그때 후스가 순교할 때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으며 로드하임교회의 강대상 옆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후스 자신은 마치 거위와 같은 존재이지만 먼 후일에 한 마리의 백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어쨌든 이 예견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후스 이후 위대한 개혁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냈다. 행복했던 기억이 그다지 없이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호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가 나도록 맞은 적도 있다. 그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내친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놓아두었다가 자

녀들이 잘 했을 때 그 사과를 주어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열네 살 무렵부터는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집 저집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년 (choirboy)이 되었다 (당시에는 흔한 일). 그러한 루터에게 부유하고도 영향력 있던 시의원 콘라드 (Conrad)의 부인 우르줄라 코타 (Ursula Cotta)가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그가 18세 되는 1501년 에르푸르트 (Erfurt) 대학에 입학했고, 스무 살 되던 무렵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 전체를 보았다. 그 후 인문학 학사가 되고, 인문학 석사가 되었다. 그 즈음 루터는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 법률가가 될 준비를 시작했고 아버지로부터 법전을 받기도 했다.

1505년에 루터는 폭풍우 속에서 번개가 치자 두려움에 떨면서 “도와 주소서! 성 안나여!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성직자가 되기로 헌신한다. (성 안나에 대한 기록은 A.D. 150년 경의 저술인 야고보 원복음서에 나타나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를 가리킴)

그 이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된 루터는 모범적인 수도생활을 했다. 수도원 생활 중에 루터는 그의 선임자 슈타우피츠의 추천으로 비텐베르크대학교 신학부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당시 로마천주교회의 여러 교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들에 대하여 논쟁하기를 원해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성당문에 붙임으로써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게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루터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그의 여러 탁월성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많은 장점들을

지닌 반면 단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루터를 쓰셨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계사에서 기념비적인 종교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하여 예민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 쓰임받았다. 그는 수도원에서 금식과 장시간의 기도, 순례, 빈번한 죄 고해 등을 통하여 수도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시기를 깊은 영적인 절망 (deep spiritual despair)의 시대라고 일컬었다. “나는 나의 구주요 위로자이신 그리스도와 의 접촉을 잃어버렸고, 그분을 내 가련한 영혼의 간수요 교수형 집행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시절 루터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탑 경험 (Tower Experience)’이다. 신부들을 위한 특별실들이 있던 그 탑(塔) 안에서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 2:4)와 “하나님의 의”(롬 1:17)라는 말을 깊이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루터의 뇌리에는 ‘의’는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고 ‘생명’은 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진리가 느껴졌다. 그 순간 루터는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과 낙원의 문을 통해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바로 이 체험으로 인해 루터는 이신칭의 (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확립할 수 있었고, 그것은 장차 로마 가톨릭의 핵심교리를 공략하게 되는 영적 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탑에서 루터 자신을 가르쳐주신 분은 성령님이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혁작업을 끝까지 감당해 낼 수가 있었다. 그에게

기도생활이 없었다면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은 계속 추진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가 열리던 1530년에 루터가 코부르크 Coburg에서 큰 압박감에 눌리며 지낼 때, 루터의 조력자요 탁상담화를 나눌 때도 시중을 들었으며 목회자 및 평신도를 교육하려고 책을 쓰기도 했던 바이트 디트리히(Veit Dietrich)가 멜랑히톤에게 쓴 편지에는 루터의 기도생활에 대한 단면이 잘 드러나 있다: “루터는 하루도 그르지 않고 3시간씩,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은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뜻하지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신앙이 그의 기도의 말에 담겨 있던지요! 그분은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느끼듯이 경외심을 품고 구했으며, 아버지와 친구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 나는 그분이 또렷한 음성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면발치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친밀하게, 장중하게, 예를 갖추어 아뢰는 말을 듣자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루터도 자신의 기도생활에 대해 <탁상담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만일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나서 성경 한두 절을 더 첨부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명상하며 나는 잠듭니다.” 루터는 크리스천이 자든지 깨어 있든지 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경험에 의하여 기도를 알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과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루터는
크리스천이 자든지 깨어 있든지
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경험에 의하여
기도를 알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과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루터가 개혁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름스 제국의회(1521)에서 변론할 때 자신이 성경을 따라서 사고하고 살아왔음을 시사하는 말을 한 바 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 또는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박되거나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정복당해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여 정복되고 자신의 양심이 말씀에 의하여 속박당하고 있으며, 성경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일이므로 자신의 성경적인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바로 그 때 루터가 남긴 위대한

명언이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이라는 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르트부르크에 머물면서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했는지 모른다.

다음으로 루터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 루터의 개혁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인맥은 대단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루터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복음적인 인맥을 이루었다. 그 동역자(친구)들, 제자들과 함께 개혁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의 부인이자 위대한 조력자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는 물론이요, 요하네스 부겐하겐, 필립 멜랑히톤, 크루치거를 비롯해 수많은 친구들과 조력자들이 루터 주변에 있었다. 사실 루터의 집에는 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 제후들, 귀족들, 귀부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루터로부터 조언과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일까? 멜랑히톤은 자신이 “루터와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음이 나으며, 루터의 안위가 나 자신의 삶 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 외에도 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선제후들도 있었고, 개혁기의 위대한 화가이자 루터 보다는 연장자이면서도 가까운 친구였으며, 루터와 카타리나 폰 보라의 약혼식에도 증인으로 참석했고,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에 목판화도 제공했던 크라나흐 (Lucas Cranach the Elder)도 개혁사상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 부분이 언급되는 것은 드물지만, 우리는 루터의 단점도 보게 된다. 비록 그의 수많은 장점에 의하여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개혁가의 후세대들의 연합과 지속적인 개혁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깊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루터의 약점이었던 ‘거친 성격’에 대한 것이다. 1529년 마르부르크 (Marburg)에서 성찬 논쟁이 있었을 때, 루터 진영에서는 루터 자신과 멜랑히톤이, 개혁진영에서는 츠빙글리와 오이콜람과디우스가 격론을 벌였다. 회의 중에 일치를 자아내지 못하고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격분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때 츠빙글리가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일치를 고백합시다. 나머지 점들은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그때 루터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쏘아붙였다: “당신이 나를 형제로 여기다니 뜻밖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1544년에 칼빈 선생이 츠빙글리의 계승자였던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그도 루터의 성격을 알고는 있었지만 루터에 대하여 힐난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루터가 마침내 당신에 대해서라기보다 우리 전체에 대해서 독설을 터뜨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아무리 마귀라고 부르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의 훌륭한 증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평소에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분을 ‘우리 모두가 큰 빛을 진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으로 대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이 얼마나 고결한 정신인가! 칼빈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거칠고, 자만하고, 격렬하며, 매우 호전적이다. 나는 수많은 괴물과 악마를 대적해 싸우라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기에 거친 숲을 헤치고, 그 루터기와 바위를 치우고, 넝쿨과 가시를 잘라버려 숲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다음으로 루터에게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던 그 시절 보호자들이 있었다. 루터가 살았던 기간인 1483년부터 1546년까지 그를 귀하게 여겨주고 직간접적인 보호와 도움을 준 선제후들이 있었다. 그 세 명의 선제후들의 치세 기간 동안에 루터는 태어나서 살고 개혁과업을 수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루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시고 쓰신 종임을 알 수 있다. 그 선제후들은 Frederick III (Frederick the Wise; 치세 기간: 1486 - 1525), John of Saxony (1525 - 1532), 그리고 John Frederick I (1532 - 1547)였다. Frederick은 루터의 보호자요 비텐베르크대학교 설립자였다. John은 종교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루터를 보호해 준 사람인 동시에 슈말칼텐 동맹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John Frederick I세는 슈팔라틴에게서 배우기도 했고 루터의 가르침에 헌신적이어서 루터의 책들을 탐독한 선제후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제후들의 배려와 보호 속에서 루터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루터를 발트부르크 (Wartburg) 성으로 피신시켜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 번역이 가능하도록 한 선제후 Frederick III세의 은혜는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들과 유리한 점들이 있었지만, 루터가 궁극적으로 의지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루터가 탁상담화에 남긴 말은 그 사실에 대하여 잘 알려준다: “내가 세상을 좇아 사는 동안 무거운 죄 짐을 의식하고 가장 연약함을 느끼며 두려움을 가지는 때에 종종

그리스도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이 나를 버릴 때 그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여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특히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에서 모진 시련을 겪을 때에, 그의 이름에 의지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머물고 살고 또 죽으려고 합니다.” 루터는 그의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것으로 말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는 매우 천진난만하게 이 속에 들어갔으며 20년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런 일(종교개혁)을 행하셨으며, 참 근원이 되셨습니다.” 루터가 시편 46편에 근거하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날 비텐베르크성교회와 성을 보수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개혁자의 후예들은 각 나라들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개혁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도 많고, 개혁주의를 배웠다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목사와 신학생들도 많고,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개혁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루터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다.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고 괴로워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하루 일과 중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한 사람! 성경을 지식적

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자신의 사상과 마음이 지배되고 속박당했던 사람! 마음속에 거칠어진 구석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인간적인 보호와 배려도 많이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전진했던 사람! 하나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루터같은 크리스천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Soli Deo Gloria



글 | 최병규

고려신학대학원과 남아공의 포체르스투름대학교(교회사 전공)를 졸업하였고, 교회의 보호와 미래발전을 위한 기독교미래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유사기독교 단체들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